



##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조 병 왕 지도교수  
석사학위 청구논문

단호박 이미지를 통한  
현대인의 내면 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2024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박 채 린

단호박 이미지를 통한  
현대인의 내면 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

조 병 왕 지도교수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양화과  
박 채 린

# 인준서

박채린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3년 11월

심사위원장 김정연 (인)

심사위원 박영근 (인)

심사위원 조병왕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 개요

이 논문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작업한 ‘PUM-’ 시리즈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이후 현대인이 일상적 삶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와 감정 상태를 연구한 것이다. 단호박 이미지를 중심으로 하여 캔버스 화면 내 공간과 이미지의 구성 및 표현 방법의 연구를 통해 현대인의 내적 모습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현대 사회가 급격하게 발전하고 변화하면서 현대인에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경향이 있다. SNS의 발달로 시시각각 넘쳐나는 수많은 정보들, 세대 간의 다양한 형태의 충돌, 성별 갈등, 청년 취업난 등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현대인은 첨단화된 사회 안에서 보다는 많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간다. 나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나 자신과 타인들의 모습을 새롭게 바라보고 그 과정에서 문제점들을 도출하여 작품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4차 산업화 시대인 현대 사회의 특성들과 현대인의 심리를 분석하고 조형적으로 연구 한다. 나는 현대인 내면의 비가시적인 스트레스, 불안, 우울 등의 정신적 고통과 심리 상태를 셀 수 없이 많은 호박씨와 액체로 가득 찬 ‘단호박 이미지’ 로 시각화한다. 절단된 단호박 및 외부로 노출된 호박씨 이미지를 캔버스 화면 위에 구성하면서 복잡한 심리적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안정과 평안을 찾아가는 현대인을 화면에 담고자 한다.

본 논문을 통해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실태를 재인식하고 회화적 치유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또한, 앞으로의 나의 작품에 대한 내용적 측면을 견고하게 정립하며, 조형적 연구 방식의 발전을 위한 행보로써 의의를 두고자 한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	1
II. 본론 .....	3
1. 작품 내용 연구 .....	3
1) 4차 산업화 시대와 현대인의 상관관계 .....	3
2) 현대인의 삶과 특징 .....	6
2. 작품 조형 연구 .....	9
1) 단호박 이미지를 통한 현대인의 심리 표현 .....	9
2) 절단과 노출 이미지를 통한 내면 공간의 시각화 .....	12
3) 단색 배경과 중앙 중심적 화면 구성 .....	18
3. 작품 분석 .....	22
III. 결론 .....	36
참고문헌 .....	38
ABSTRACT .....	40

## 작 품 목 차

[작품1] PUM, oil on canvas, 50.0x72.7cm, 2022

[작품2] PUMMM\_yellow, oil on canvas, 89.4x145.5cm, 2023

[작품3] PUMMM\_warm, oil on canvas, 89.4x145.5cm, 2023

[작품4] PUMMM\_sea, oil on canvas, 89.4x145.5cm, 2023

[작품5] PUMMM\_ING, oil on canvas, 89.4x145.5cm, 2023

[작품6] PUMMM\_reset, oil on canvas, 60.6x90.9cm, 2023

[작품7] PUMMM\_tunnel, oil on canvas, 60.6x90.9cm, 2023

[작품8] PUMMM\_mouth, oil on canvas, 97x162.2cm, 2023

[작품9] PUMMM\_2, oil on canvas, 60.6x90.9cm, 2022

[작품10] PUMMM\_4, oil on canvas, 80.3x130.3cm, 2022

## 도판 목차

[도판1] Myth Explored, explained, exploded, 1993

[도판2] PUMMM\_warm, oil on canvas, 145.5x89.4cm, 2023

[도판3] Concetto spaziale, Attesa, 1965

[도판4] The Prison of History, Acrylic on canvas, 63x77cm, 1981

[도판5] 증명사진

[도판6] PUM, oil on canvas, 72.7x50.0cm, 2022

[도판7] Cactus No.69, oil on canvas, 62.1x130.3cm, 2011

[도판8] Self-portrait, oil on canvas, 193.9x259.1cm, 2007

# I. 서론

최근 들어 뉴스나 기사에서 ‘죽음’에 관련된 내용이 빈번히 보도된다. 삶을 살아가는 유기체라면 죽음은 언젠가 마주하게 되는 것이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 속 결과가 아닌 타인에 의해서, 혹은 자의로 발생하는 죽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대한민국은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를 오래도록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의 수가 상당히 많다. 나는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현대인을 스스로 궁지로 내몰리게 하는지, 그들이 하루하루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첨단화, 고도화된 현대 사회의 특성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심리 상태 연구와 작품 제작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나는 복잡한 현대 사회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21세기에 접어들며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가파른 경제 성장으로 국민소득 수준이 향상되며 급격한 발전을 이뤄냈다. 사회가 발달될수록 사람들은 더욱 윤택한 삶을 기대하게 된다. 본인이, 또는 타인이 설정한 높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불안, 심리적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 다수의 현대인은 높아진 기대치에 부합하기 위해 한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 또한, 바쁜 삶은 현대 사회에서 가치 있는 삶으로 자신의 위치를 나타내주는 척도가 된다. 이는 타인과의 경쟁을 부추기고 타인의 삶을 멋대로 평가하게 만든다. 자신의 삶과 비교해 스스로 안도감과 좌절, 불안을 느끼기도 한다. 현대인은 타인의 잣대에 쫓기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며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 나의 작품을 통해 현대인의 심리적 고통을 외

부로 표출하여 해소하고, 심적으로 여유가 없는 현대인에게 휴식과 안정을 선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는 현대인이 삶을 살아가며 경험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심리 상태를 응어리가 내재된 단호박 이미지 구성을 통해 표현한다. 단호박 외면의 일부가 절단되어 밀폐된 안쪽 공간이 드러나고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씨앗과 액체 이미지는 심리적 고통을 해소하고 평안을 찾는 현대인의 모습을 담아낸다. 비시각적인 인간의 내면을 단호박에 비유하여 시각화시키고자 단호박을 인물 증명사진처럼 단색 배경의 중앙에 배치하여 단호박과 관람자가 서로를 바라보는 시점으로 표현한다. 정면을 응시하는 단호박의 시선을 통해 채소 그 이상의 존재인 ‘사람’으로 바라보고 인식하고자 한다.

본론 1장에서는 작품의 내용적 측면에 대해 서술하고 4차 산업화와 현대인의 삶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고 분석한다. 2장에서는 1장의 내용적 측면을 기반으로 제작한 작품의 조형적 특징에 대하여 설명한다. 캔버스 화면 내 단호박 이미지의 구성, 배치 및 표현 방법에 대해 분석하고, 관련성 있는 작가들의 작품과 비교 분석하며 공통점, 차이점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3장의 작품 분석은 연대기 순으로 단호박 시리즈의 작품별 특징에 대해 서술한다. 결론에서는 연구 배경,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작품 분석 등의 심도 있는 연구와 분석을 통한 작품의 내용적, 조형적 측면에 대해 되돌아본다. 이 과정에서 발견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토대로 앞으로 작품의 방향성과 연구 방법을 새롭게 제시한다.

## II. 본 론

### 1. 작품 내용 연구

#### 1) 4차 산업화 시대와 현대인의 상관관계

급격하게 변화하고 발전해 가는 현대 사회 속에서 현대인은 어떠한 심리 상태로 하루하루를 살아갈까. 우리나라는 1950년 한국전쟁 이후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눈부신 경제 성장, 교통의 발달과 그로 인한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을 창출했다. 또한, 국제적 교류의 확대와 지속적인 협력이 활성화되면서 성장 속도는 더욱 불이 붙었다. 하지만, 빠른 성장 과정 속에서 빈부격차, 물가 상승, 취업난, 실업 등 삶과 직결되는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발생했다.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 분위기, 성별과 세대 간의 갈등, 최근에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무차별 범죄 등이 우리들의 삶에 큰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안겨 주고 있다. 타인과의 인간관계 또한 그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의 범위와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한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사회 변화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 문제 중 가장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높은 자살률’이다. 2003년 이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치솟은 자살률을 통해서 급격히 변한 사회 분위기가 국민 개인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 하지만, IMF가 높은 자살률의 원인이 되었다면 경제 상황이 회복된 후에 자살률이 안정적인 수치가 되는

것이 순리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수치는 증가했다. 심리적인 관점에서의 ‘행복’은 사회가 만든 기준치가 아닌 주관적 기준에 부합해야 얻을 수 있다. 기술이 현저하게 발달하고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진 것은 사실이나 행복이 그에 비례하여 얻어지지 않는다는 점 또한 분명하다. 사회가 발달할수록 개인의 삶의 기대치는 높아지고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현대인은 스스로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불안, 심리적 고통을 느끼기도 한다. 현대 사회는 자살률의 증가를 개인의 문제일 뿐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보며 분위기를 무마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물론 자살은 개인의 결정 및 실행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지만 자살이라는 행동으로 이어지기까지 사회가 끼친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 우리는 이 현상을 사회의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관심 있게 바라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sup>1)</sup>

4차 산업의 발달로 우리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준 것은 컴퓨터, 스마트폰, SNS와 같은 인터넷 정보 통신 수단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에 대해,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는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SNS에 공유하며 타인과의 소통을 시도한다. 현대 사회는 사람, 사물과 같은 모든 것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정보가 만들어지고 공유되며 활용되는 ‘초연결 사회’로 발전하였다. 단순한 개인의 소통 수단 변화뿐만이 아닌 국제적인 부분에서도 전 세계적으로의 연결이 협력과 신뢰를 쌓는 행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며 이를 통한 경제적인 이득과 산업에서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하지만 비약적인 세상의 성장은 현대인에게 불안과 고독을 안겨주었다.<sup>2)</sup> 과거 한국인들은 현대인과 비교했을 때 집단주의적 성

---

1) 서국희, 「왜 자살률 세계 1위인가?」, 보건의료기술평가, 2017, pp.1-2

2) 서준혁, 「현대인의 불안과 자기 진실성(Authenticity) - 치유적 관점에서 본 니체와 테일러 철학-」, 대한철학회, 2019, pp.2-3

향이 보다 강했다고 볼 수 있다. ‘나’ 보다는 ‘우리’ 라는 단어에 익숙하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개인주의적 측면보다는 집단에 속해 있는 자신을 더 익숙하게 생각했다. 현재, 빠르게 성장한 현대 사회는 ‘개인주의’ 를 자연스럽게 불러일으켰다. 본인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본인만을 중심으로 타인을 신경 쓰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자기 자신을 위주로 사고하고 생활하면서 삶은 점점 더 고립된 형태로 변화되고, 살아가는 의미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없게 된다. 그 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레 무관심으로 변하고 개인은 불안과 고독을 경험한다.

현대인은 하루하루를 원만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에 부치고 여유를 생각할 겨를이 없어 고단한 현실에서 도피하고자 순간의 쾌락만을 좇는 경향이 있다. 최근 법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마약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자극적이고 가벼운 소재의 이야기에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연예인의 사생활 폭로에 과도한 관심이 쏠리고 살인, 불륜 같은 높은 수위의 영상 매체들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것은 끊임없이 자극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단면이라고 볼 수 있다. 중독성 강한 게임에 쉽게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다. 게임은 한번 시작하면 몰입도가 좋아 현실 세계에서 벗어나 게임이라는 가상현실 속에서 잠시나마 고단한 현실을 잊는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기술이 발달된 4차 산업 시대의 산물인 스마트폰이 보급화 되면서 모바일 게임 시장이 커지며 게임의 접근성이 더욱 좋아졌다. 중독에 빠지면 스스로 가상세계에 고립되어 잇따라 죄책감과 후회를 느끼게 된다. 이러한 감정들은 다시금 중독 행위를 유발하고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렇듯 내면의 불안, 스트레스를 모두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만이 가장 좋은 삶의 방법은 아니다. 우리는 스스로와 타인을 위해 자신의 내면적 불안, 스트레스를 외부로 끌어내어 긍정적으로 나 자신을 치유하고 발전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2) 현대인의 삶과 특징

설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 속에서 시간에 쫓겨 살아가는 현대인을 ‘타임 푸어 Time poor’ 라고 부른다. 타임 푸어란 시간을 뜻하는 ‘time’ 과 가난을 뜻하는 ‘poor’ 의 합성어로 일에 쫓겨 여유가 없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신조어이다.<sup>3)</sup> 발전된 기술은 빠른 속도로 수많은 정보들을 처리하며 한 해가 다르게 변화하는 사회를 만들었다. 현대인은 미래가 불확실한 사회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야 한다는 의무감과 시간 압박에 잠식되어 가고 있다. 세상이 첨단화, 도시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많은 발전이 이루어져 높은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 수도권에 인구 밀집도가 압도적으로 높아졌다.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본능적인 생존 전쟁의 분위기가 형성되며 자연스럽게 경쟁 구도적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해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을 필요로 하는 등 시간에 쫓기는 삶을 청소년 시기부터 자연스럽게 경험한다. 현대인에게 시간은 돈과 같은 귀중한 자원으로 인식되며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강박을 느낀다. 바쁘게 사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고 휴식을 취하며 여유가 느껴지는 삶은 문제시하게 된 것이다. 바쁨은 사회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나타내주는 척도가 되고 이는 곧 타인과의 경쟁을 부추기게 만든다. 다른 사람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며 멋대로 타인을 평가하고 스스로 초조함과 좌절을 느끼기도 한다. 자신을 돌아보며 천천히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지만 더 이상 현대인에게 휴식을 취하는 행동은 ‘나태’ 이자 ‘게으름’ 일 뿐이다.

---

3) 네이버 지식백과, 타임 푸어(time poor),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4368391&cid=43667&categoryId=43667>  
(2023.10.08. 검색)

휴식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매우 중요한 필수 요소이다. 휴식을 취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으로 축적되어 온 피로도를 낮추어 건강한 몸을 만들고 다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활력을 생성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상당히 많은 현대인이 휴식을 취하면서 불안을 느낀다. 휴식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태’의 상태로 인식되면서 바쁘게 사는 삶, 즉 가치 있는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불안이 몰려오게 되는 것이다. 쉬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쉬지 못하는 현대인은 대부분 스스로 바쁜 삶을 선택한다.

그렇다면 과거의 사람들은 어땠을까. 옛 시대의 삶에도 물론 스트레스나 불안을 느낄 요소들은 존재했다. 그러나 현대인과는 상황과 관점의 차이가 존재한다. 과거에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자연재해나 병에 의해 삶이 위협받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생존’이 중요했다. 의식주를 비롯한 살아남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욕구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내일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고, 자연스레 현재 지향적인 삶을 살았다. 현대인은 반대로 현재가 아닌 미래를 위해 지금을 투자하는 미래지향적 삶을 추구한다. 어린 시절부터 조기 교육을 받고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가서 불안정한 미래를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쉴 새 없이 바쁘게 일하고 끊임없이 자기 계발을 하는 것이다. 지금은 바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먼 미래에는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보상 심리가 현대인의 시간을 빈곤하게 만들었다. 24시간이라는 시간의 총량은 과거나 현재나 불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요소이지만 현대인의 삶이 과거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가속화되어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sup>4)</sup>

보통 스트레스는 사람에게 무조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지만

---

4) 한중섭, 「사실, 바쁘게 산다고 ○○○해결되진 않아」, (책들의 정원, 2018.07.18.), pp.17~25

긍정적인 면도 있다. 스트레스란 라틴어 ‘stringer’에서 유래된 단어로 팽팽하게 조인다는 의미이다. 20세기 초 캐나다의 내분비학자 한스 셀리에(Hans Selye, 1907.01.26~1982.10.16)에 의해 의학용어으로써 대중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외부로부터의 자극으로 인해 우리 신체에서 일어나는 비특이적 유기체의 반응이다. 현대인은 넘쳐나는 수많은 정보들과 빠르게 변화하는 삶의 흐름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sup>5)</sup> 적은 양의 스트레스는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고 민첩한 판단과 유연한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 낸다. 약간의 스트레스는 우리가 생활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필수적인 요소다. 문제는 많은 양의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이다. 다양한 상황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불면과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나타나게 하며 나아가 불안감, 우울감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불안은 정신적인 긴장감과 혼란스러움을 야기하며,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는 병적인 수준의 상태로 악화되기도 한다. 예고 없이 발생하는 불안은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하여 집중력이 저하되어 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또한, 언제나 불안으로 신경이 곤두서있는 것은 신체적, 심리적으로 피로도가 높은 상태로 이어진다.

이렇듯 다수의 현대인은 휴식 없는 삶에 긴 시간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정신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나는 현대인의 정신적 고통을 회화적인 방식으로 해소하고자 한다.

---

5) 양명숙, 전지경 외 3명, 『현대인의 정신건강』, (학지사, 2019.08.30.) pp.206~207

## 2. 작품 조형 연구

### 1) 단호박 이미지를 통한 현대인의 심리 표현

수많은 정보의 습득에 대한 압박, 정신적 욕구, 그 과정에서 오는 심리적 고통인 스트레스, 불안, 우울 등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평온한 걸 모습과 다른 복잡하고 응어리가 내재된 대상이 필요했다. 그 과정에서 내부에서 분출되는 마음의 응어리들을 표현해 줄 요소인 다량의 씨가 담긴 단호박을 선택하였다. 단호박의 원형을 온전히 유지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절단하여 떼어져 나간 형상과 외부의 공간으로 노출된 씨앗과 함께 흘러나오는 액체 이미지는 나의 화면 공간구성의 주된 표현 방식이다. 중점적으로 표현해야 할 부분은 현대인의 심리를 드러내 줄 요소인 단호박의 절단면의 형태와 그곳에서 쏟아져 나오는 씨앗과 액체이다. 단호박을 절단하여 연출한 이유는 내부의 씨앗을 외부로 노출시키기 위함이다. 무수한 씨앗 덩어리는 현대인 내면의 불안, 부정적 감정 등인 응어리를 비유적으로 형상화한다. 내면을 가감 없이 드러내며 씨앗이 쏟아져 나오는 극적인 연출을 통해 현대인의 내면의 고통을 외부로 토해낸다. 씨앗들이 밖으로 노출되고 텅 비워진 단호박의 동굴 같은 내부 공간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새로운 무엇인가를 담을 수 있는 ‘리셋’의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듯 나는 단호박 이미지를 통해 현대인의 심리적 고통을 외부로 표출하여 해소하고자 하며, 결과적으로 평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호박 이미지는 마트에서 직접 구입한 단호박을 칼을 사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절단하여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고 그중 선별된 이미지를 캔버스 화면에 구성한다. 절단된 호박 안쪽 공간에서 수많은 호박씨들이 쏟아져 나오

는 느낌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른 호박 절단 시 축적한 호박씨들을 추가로 더 배치한다. 씨앗을 절단된 단호박의 형태와 어우러지도록 배치한 후 점성이 있는 액체를 단호박의 내부에서 흘러넘치는 이미지로 연출하여 촬영을 진행했다. 촬영한 단호박 이미지는 디지털 프로그램 중 하나인 포토샵으로 추가 편집작업을 진행한다. 평면적 캔버스 화면에서 입체감과 원근감을 강조하고자 광각렌즈로 촬영한 것처럼 단호박 씨앗을 확대하고 축소하는 과정을 거친다. 점성이 있는 액체 부분은 단호박의 내부 공간에서 외부 공간으로 흘러내리는 이미지를 합성한 후 형태를 의도적으로 일그러뜨려 도식적인 얼룩들이나 아지랑이와 같은 인공적인 패턴 무늬로 변화시킨다. 단호박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노란색 액체는 털어버리고 싶지만 쉽게 털어버리기 어려운 인간 내면의 응어리들을 상징적으로 담고자 했다. 외부 공간에 노출되어 바닥 면에 닿은 도식적인 얼룩들은 현대인을 반복해 괴롭히는 정신적 스트레스, 불안, 우울 등이 외부적 노출을 통해 시각화 된 모습을 담고자 했다.

화면 속에서는 단호박 내부와 아무것도 없는 단색의 공간으로 구분된다. 단호박이 놓여 있는 공간은 바닥과 배경의 경계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고 대부분 밝은 미색으로 칠하여 화면 너머로 끝없이 이어질 것 같은 이미지를 연출했다. 정신적인 공간에 있던 씨앗들은 현실에서 멀어지며 ‘무한의 공간’으로 이동한다. 내가 기대하는 미래가 있는 쾌활하고 긍정적인 곳으로 씨앗들이 돌진해 나가듯 표현한다.

화면 속 색감은 난색인 노란색이 지배적이다. 노란색은 빨강, 파랑과 같이 다른 색을 혼합하여 만들어지는 색이 아닌 일차색이다. 노란색은 다른 어떤 색들보다도 명도와 채도가 높은 빛에 가장 가까운 색으로 명시성이 중요한 안전 표지판이나 어린이와 관련된 차량, 의복에 쓰인다. 태양의 따사로운 햇

살을 나타내는 색으로 명랑하고 미소 짓는 색, 친절함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색이다. 후기 인상주의의 대표적인 화가 빈센트 반 고흐(Vincent Willem van Gogh, 1853.03.30~1890.07.29)는 프랑스 남부 지역인 아를에서 지낸 당시 그곳의 빛에 대해서 ‘아름다운 노랑’이라고 표현했다. 그곳에서 지내던 집을 노란색으로 칠하고 그 집을 그림으로 자주 그렸을 정도로 노란색에 남다른 애정이 있었다. 이렇듯 빛의 색인 노랑은 고대 유럽 상징학에서 탐구의 색으로 여겨졌으며 ‘깨달음의 색’이 되기도 한다.

명도와 채도가 높은 색들은 위에 서술한 대로 대체로 화사하고 발랄한 이미지를 나타내지만 모든 것들엔 양면성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노랑은 시기와 질투, 거짓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연상시키기도 하며 영어로 ‘yellow’는 ‘비겁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다. 위험한 것을 명시하며 경고를 하는 색으로 러시아 태생의 추상 미술계의 거장 바실리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 1866.12.16.~1944.12.13)는 노랑이 뾰족한 이미지로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색이라고 언급했다. 밝고 맑은 색이기에 조금만 다른 색이 섞이면 바로 빛을 잃고 더러워지며, 누렇게 변색된 노랑은 노화, 몰락을 의미하기도 한다.<sup>6)</sup> 이렇듯 노랑은 긍정의 의미, 부정의 의미가 공존하는 입체적인 색채이다. 나는 그중 긍정적인 면에 주목했다. 노랑의 밝은 에너지를 단호박이라는 이미지와 더불어 색으로써 작품에 녹여 타인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

6) 에바 헬러, 『색의 유혹1』, (예담, 2002.02.19.) pp.143~172

2) 절단과 노출 이미지를 통한 내면 공간의 시각화



[도판1] Myth Explored, explained, exploded,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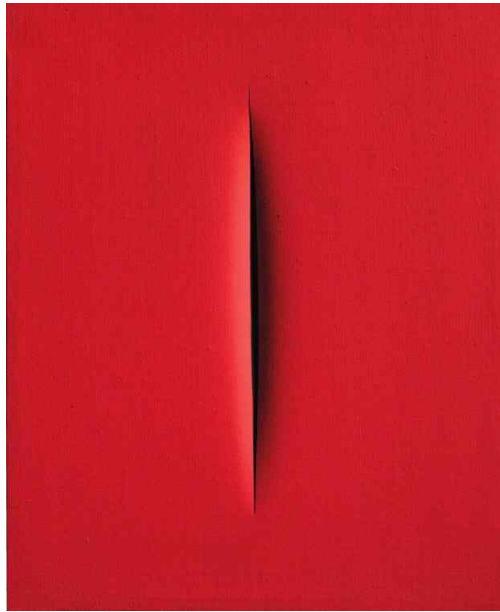
[도판2] PUMMM\_warm, oil on canvas, 145.5x89.4cm, 2023

영국 브리스톨 출신의 현대 미술 작가 ‘데미안 허스트(Damien Hirst, 1965.06.07~)’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 대한 탐구를 설치물로 표현했다. [도판1]은 데미안 허스트가 1993년에 선보인 작품 ‘Myth Explored, explained, exploded’이다. 이 작품에서는 상어의 시체가 3개의 폼알데하이드 용액이 담긴 구조물 안에 각 삼등분으로 절단된 채 담겨있다. 실제 상어이기 때문에 절단면에는 상어의 뼈나 내장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어 다소 시각적인 충격을 안겨준다. [도판2]의 나의 작품에서도 단호박의 절단면을 기준으로 외면과 내면 공간의 경계가 확실하게 구분된다. 내면은 보이지 않는 인간의 감정을 시각화한 부분으로 상어를 절단하여 내면을 드러내는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과 공통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똑같이 주체에 절단 행위가 가해지며 내면과 외면의 공간이 나뉘게 되지만 절단 방식에서의 차이가 존재한다. 데미안 허스트의 상어는 세 덩어리로 분리하기 위한 절단을 했을 뿐 완전한 상어의 형태는 깨트리지 않았다. 생명체의 본래 형태와 생생한 표정 등을 보여주는 것이 의미 전달에 효과적이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나의 경우에는 단호박의 절단이 이루어지면서 떼어져 나간 부분은 현대인 내면의 응어리들의 표출을 막는 벽과 같은 요소로 화면에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래의 단호박 형태에서 벗어나게 된다. 절단 행위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 또한 차이가 있다. 데미안 허스트는 상어를 절단하여 ‘죽음’이라는 의미를 극대화시켰다. 바닷속에서 상위 포식자로 공포의 상징인 상어의 죽음, 그 시체를 박제했음에도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운명을 보여준다.<sup>7)</sup> 나는 단호박의 내부에 있던 현대인의 심리적 고통을 외부로 표출하여 해소하고 평안을 안겨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

7) 사이언스 투데이, 『[사이언스 in Art] 삶과 죽음을 박제하는 예술가…데미안 허스트』, (YTN사이언스, 2022.06.17.)  
<https://science.ytn.co.kr/program/view.php?mcd=0082&key=202206171655382087>  
 (2023.10.09. 검색)

예술의 물리적, 이론적 한계를 재해석하여 새로운 관점의 공간을 표현한 예술 작품도 존재한다.



[도판3] Concetto spaziale, Attesa, 1965

루치오 폰타나(Lucio Fontana, 1899.02.19~1968.09.07)는 어떠한 요소를 ‘절단’ 하여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유명한 작가이다. 대표작인 ‘베기’는 기존의 평면과 입체의 장벽을 허물고 새로운 공간을 밖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행위를 통해 작품을 만들어낸다. 캔버스 위에 붓이나 연필로 그리는 것이 아닌, 캔버스의 물성과 캔버스 주변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다. 루치오 폰타나는 공간성을 특징으로 한 작품을 회화가 아닌 ‘공간 개념(Concetti spaziale)’이라고 부르며 공간 인식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작품 표면에 구멍을 뚫어 표면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내부 공간을 드러내는 것은 그가 작품을 제작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요소다.

루치오 폰타나와 나의 작품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내면과 외부라는 공간을 만들어내지만, 표현 방식에 차이가 있다. 루치오 폰타나는 캔버스를 칼로 베어 공간을 창조함과 동시에 평면이 아닌 입체로써 변화시켰다. 나의 작품에서도 칼을 이용하여 단호박을 절단하며 공간을 창출해 낸다는 점은 루치오 폰타나와 동일하다. 나는 내면이 개방되어 있는 형태의 단호박 이미지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평면인 캔버스 위에 유화 물감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입체와 평면이라는 구조적인 큰 차이점이 존재한다.

루치오 폰타나의 칼자국은 날카로운 칼이 지나간 결과일 뿐이며, 기계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인다. 작가의 독자적인 감성을 담지 않고 현대의 기계적으로 생산된 공산품처럼 표현된다. 루치오 폰타나는 사물과 공간 사이에 발생하는 긴장감에 주목하고, 회화와 조각이라는 유형 재료와 무형의 존재인 그림자를 캔버스에 집어넣음으로써 공간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다고 보았다.<sup>8)</sup> 결과적으로 루치오 폰타나는 공간을 만드는 행위 자체에 주목하며 평면이라는 한계를 깨고 입체로 나아가는 진보적인 실험적 행동에 의미를 두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절단된 단호박의 내면과 외면의 공간을 현대인의 심리와 정화된 새로운 시각의 공간으로 분리하고 외부로 노출된 씨앗의 이미지를 통해 심리적 고통의 해소를 요했다.

---

8) THE ART STORY, 『"Lucio Fontana 아티스트 개요 및 분석』, (THE ART STORY, 2018.2.18.) <https://www.theartstory.org/artist/fontana-lucio/> (2023.11.03. 검색)



[도판4] The Prison of History, Acrylic on canvas, 63x77cm, 1981

피터 헬리(Peter Halley, 1953.09.24.~)는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시대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물리적, 심리적 측면을 표현하기 위해 기하학 도형을 사용하여 대담한 추상 작품을 보여준다. 화면 속 회색 벽의 공간은 빛이 들지 않는 듯 전체적으로 어둡게 표현되어 있다. 감옥 창문 너머에 있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는 이미지를 통해 현대 사회 속에서 억압된 본인의 삶을 추상적으로 묘사했다. 피터 헬리와 나의 작품에서 현대인의 심리적 고통을 시각화하고자 했던 의도와 내면으로 설정된 공간에 부정적인 요소가 담겨있는 점은 같다고 볼 수 있다. 피터 헬리의 작품 속 벽돌로 이루어진 벽의 중앙에는 감옥을 연상시키는 창살로 막혀있는 작은 창문이 있다. 창문은 내면과 외면의 공간을 분리하며 바깥세상과의 연결을 차단하는 요소이다. 피터 헬리는 자신이 살아온 뉴욕을 자연이 점점 소멸되어 가고 폐쇄적인 현대 도시로 보았다.<sup>9)</sup> 자유의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현대 사회 속에 자신이 갇혀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 생각한다. 창문의 내면은 현대 사회에 억압된

자신, 창문의 외면에는 폐쇄적인 도시의 풍경이 존재하며 내부와 외부와의 공간 이동의 움직임은 표현되지 않았다. 하지만, 나의 경우 차단이 목적이 아닌 내면의 요소를 외부로 이끌어내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터 헬리의 창문과 같이 외부와 내부의 상호 공간의 이동을 가로막는 단호박이 절단되어 떼어져 나간 부분은 그리지 않았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사회 구조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유기체들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임은 같지만, 이를 표현하는 방식은 다양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9) THE ART STORY, 『Peter Halley 아티스트 개요 및 분석』, (THE ART STORY, 2021.6.29.) <https://www.theartstory.org/artist/halley-peter/> (2023.11.03. 검색)

### 3) 단색 배경과 중앙 중심적 화면 구성



[도판5] 증명사진



[도판6] PUM, oil on canvas,  
72.7x50.0cm, 2022

주체를 단색 화면에 중앙 중심적으로 배치하는 경우는 흔히 증명사진에서 볼 수 있는 형식이다. [도판5]의 증명사진은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의 공인 신분증을 만들 때 소지자의 신원을 보증하고 밝히는 용도로 사용된다. 증명사진은 명확하게 인물을 판단하고, 타인의 위장 식별을 위해서 엄격하게 정해진 규격대로 촬영되어야만 한다. 사진을 촬영할 때 인물과 다른 물체가 함께 찍힌다거나 배경에 무늬가 있는 등의 변형이 들어가면 인정되지 않는다.

[도판6]과 같이 나의 작품에서도 하나의 단호박을 화면의 정중앙에 배치한다. 단호박을 사진관에서 촬영하는 인물 증명사진처럼 단호박과 나, 서로를 바라보는 시점으로 촬영하고 표현한다. 정면을 응시하는 시선을 통해 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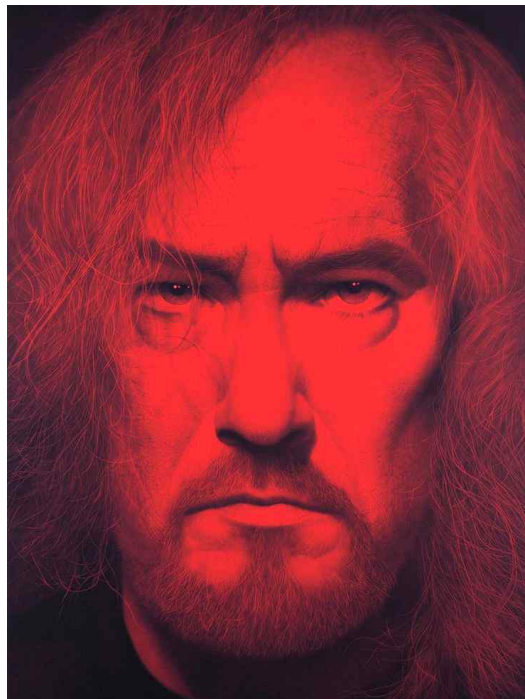
소 그 이상의 존재인 ‘사람’ 으로 바라보고 인식하고자 한다. 나의 작품과 비슷하게 증명사진의 구도로 주체를 표현한 타 작가의 작품을 비교 분석해보고자 한다.



[도판7] Cactus No.69, oil on canvas, 62.1x130.3cm, 2011

‘이광호(1967~) ‘작가는 선인장 이미지를 화면 중앙에 배치하여 극사실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손바닥만 한 매우 작은 크기의 선인장을 몇십 배, 몇백 배로 크게 표현하며 아무것도 없는 밝은 배경 중앙에 배치한다. 인물이 아닌 사물인 선인장과 단호박을 증명사진 형식으로 표현하여 사물이 아닌 사람을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연출한 부분은 공통되는 부분이다. 이광호 작가는 작품 속 선인장의 존재 가치를 존중하고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인정하면서 그러한 선인장의 모습을 통해 인간 본연의 존재 가치까지 나타내고 있는 듯하다. 그림을 통해 어떠한 의미를 전달하기보다 대상

을 바라보는 시선에 집중한다.<sup>10)</sup> 그렇기에 배경의 공간 표현이나 여러 사물의 배치 같은 다른 부수적인 요소가 필요 없으며 화면 중앙에 가득 찬 사물 자체에 주목한다. 나의 그림에서도 단호박이 놓인 배경을 밝은 미색의 단색으로 처리한다. 주민등록증, 여권 사진 등 국가에서 신분증으로 활용하는 사진은 반드시 정해진 규격의 배경을 사용해야 한다. 작품 속 단호박 이미지 역시 다른 요소들 없이 자신의 존재를 꾸밈없이 온전히 드러낸다.



[도판8] Self-portrait, oil on canvas, 193.9x259.1cm, 2007

강형구(1955.12.04.~) 작가의 자화상 시리즈 작품들 중 [도판8]의 그림도 단색 화면에 주체를 중앙 중심적 배치하여 증명사진과도 같은 형식을 사

10) 김윤섭, 『이광호의 선인장』, (아츠앤컬처, 2013.12.11.)  
<http://www.artscultur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07> (2023.10.09. 검색)

용하였다. 사물이 아닌 인물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는 강형구 작가는 지금까지 70여 점이 넘는 자화상을 그려 왔다. 작가는 스스로를 표현하기보다 타인과 함께 존재하는 자신,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기 위해 자기와 가장 가깝고 잘 아는 사람인 ‘나’를 그리게 되었다고 한다. 자화상 작품들은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던 과거의 자신을 기억하기 위한 다짐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이러한 비가시적인 사람의 인생, 시대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작가는 극사실주의 기법을 활용했다.<sup>11)</sup> 극적인 리얼리티를 통해 사람의 인생과 시대상을 드러내고자 주체를 중앙에 배치함으로써 인물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나의 작품은 사물인 단호박을 사람에 비유하여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하기 때문에 단호박이 사람처럼 인식될 수 있는 증명사진 규격의 화면 구성으로 표현했다. 단색 배경에 주체를 중앙에 배치하는 화면 구성과 비가시적 요소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방식은 비슷하지만, 이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점에는 차이가 있다. 강형구 작가는 인물을 회화적으로 섬세하게 묘사하여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자신의 자화상에 비유하여 표현하였다고 생각한다. 나의 작품의 경우 인물이 아닌 단호박이라는 사물의 씨앗으로 현대인의 심리적 고통을 시각화하고자 하였다. 단호박의 씨앗이 내부에서 외부로 나오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내면의 고통이 드러나며 해소로 연결된다.

---

11) 이진숙, 『삶을 농축한 얼굴을 그리는 화가 강형구』, (툽클래스, 2007.07)  
<http://topclass.chosun.com> (2023.12.05. 검색)

### 3. 작품 분석



[작품1] PUM, oil on canvas, 72.7x50.0cm, 2022

[작품1]은 ‘PUM-’ 시리즈의 첫 번째 작업이다. ‘PUM-’ 시리즈는 인간의 내면을 단호박 이미지를 통해 시각화하고자 한 연작이다. 캔버스에 미색의 유화 물감을 나이프로 두께감 있게 펴 바르고 물감이 마르기 전에 판화용 소형 고무 롤러를 이용하여 미세한 요철을 만든다. 캔버스의 고유 질감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질감을 드러낸다. 단호박의 껍질과 사람의 피부 표면 역시 독특하고 고유한 질감이 존재하는데 인물에 비유한 단호박 이미지의 존재성 표현을 위해 요철을 넣는다. 롤러로 화면을 문질러 섬세한 요철이 만들어지면 미묘한 높낮이 차가 생기는데 이 모습이 사람의 피부 표면과 유사해 보였다. 요철 작업 후 물감이 완벽하게 건조되면 위에 단호박 이미지를 그린다. 이때 요철로 인한 자연스러운 흐림 효과를 통해 노란색의 긍정 요소들과 그로 인한 따뜻한 분위기들을 강조한다. 바탕

면의 섬세한 질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유화 물감의 광택이 나는 특성을 최대한 줄이고 유화 물감과 유화 보조제는 최소한으로 사용하면서 단호박 이미지를 그린다.

단호박 이미지는 화면의 정중앙에 1개만 배치한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바라보는 단호박의 시점보다는 증명사진과 유사한 시점으로 단호박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캔버스 화면 위로 옮긴다. 정면을 응시하는 시선을 통해 채소 그 이상의 존재로 바라보고자 한다. 나는 단호박 이미지를 캔버스 위에 그리지만 결국 ‘사람’의 존재, 더 구체적으로는 사람의 내면을 그린다. 배경을 단호박과 친숙한 밭이나 마트 같은 일반적 공간으로 설정하기보다 미색의 단순한 색면 공간으로 처리하는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다. 주민등록증, 여권 사진 등 국가에서 신분증으로 활용하는 사진은 인물의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반드시 정해진 배경 처리를 해야 한다. 내 작품 속 단호박 이미지 역시 특정 부분을 가리거나 다른 요소들로 대체하지 않고 증명사진처럼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드러낸다.

단호박 껍질 부분은 본래 녹색에서 명도와 채도를 약화시키고 노랑 색감을 추가하면서 단호박 껍질 안쪽 면과의 색의 대비를 좀 더 줄여 내부 공간에서 씨앗이 쏟아져 나오는 형상에 집중하였다. 단호박의 외면보다는 절단면 안쪽 공간의 상태에 초점을 맞추고 단호박 껍질의 특징적 요소보다는 내면의 씨의 움직임과 분포에 집중하였다.



[작품2] PUMMM\_yellow, oil on canvas, 145.5x89.4cm, 2023

[작품2]는 ‘PUMMM- time’ 시리즈의 첫 번째 작업이다. ‘PUMMM-time’ 시리즈에서는 단호박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단호박 씨앗의 양, 속도 등의 차이를 4개의 작품마다 달리하여 인간이 처한 환경, 감정의 변화를 각각 표현하였다. [작품1]의 증명사진 시점 및 형식과 얼룩무늬 액체 표현 방식을 활용하였다. 80호 캔버스로 기존 작품보다 크기를 확대해 관람자가 대형화된 단호박 이미지를 통해 단호박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각적으로도 강렬한 인상을 주고 압도하는 효과를 주고자 했다.

단호박의 한 면을 칼로 절단하여 노출된 안쪽 내부 공간을 강조하고 떨어져 나간 껍데기 부분은 화면에 배치하지 않았다. 단호박이 성장하고 존재하기 위해 껍질 부분은 꼭 필요한 중요한 존재이지만 나의 작품 속에서는 외부로의 표출과 소통을 차단하고 있는 ‘장벽’ 과도 같은 부정적 요소로의 의

미를 갖는다. 오랜 기간 갇혀 있던 공간은 나를 통해 새로운 공간과 연결성을 찾는다. 두텁고 단단한 껍질을 뚫고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단호박 씨들의 모습을 통해 스스로 억누른 혹은 억눌린 인간의 자화상을 발견한다.

식용으로 사용하는 일년생 식물 단호박은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현대인이 많이 찾는 호박의 한 품종이다. 처음 일본을 통해 도입되었고 재배 형태도 다양한 채소로써 덩채배, 노지 재배가 모두 가능하지만 비교적 체계적이고 시스템에 근거한 덩채배 방식이 열매의 당도, 모양 등 상품성이 훌륭해 더 많이 선호된다고 한다.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관찰되는 색, 크기의 변화, 딱딱하고 두터운 표면과 껍질, 매끈하면서도 울퉁불퉁한 곡선적 형태, 텅 비어있는 듯한 내부 공간, 수많은 씨 같은 단호박만의 성장환경과 특성은 어찌 보면 인간의 모습과도 닮아있다고 할 수 있다.



[작품3] PUMMM\_warm, oil on canvas, 145.5x89.4cm, 2023

[작품3]는 단호박의 절단된 안쪽 면에서 수도꼭지의 물이 조금씩 흘러나오듯 질서적이고 안정적인 씨앗과 액체의 표출상태를 나타내었다. [작품2]와 다르게 액체를 구성하는 부분의 선적인 형태의 얼룩을 패턴화 시켜 구조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마치 물과 기름이 잘 혼합된 듯 역동적이면서도 유연하게 흘러가는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단호박 씨앗과 액체의 흘러내림이 정지된 듯한 기존 작업의 표현과는 달리 액체를 화면 하단 너머로 확장해 시간의 흐름과 함께 지속적인 표출이 진행되는 상태를 담아냈다. 주요 색채인 노란색은 따스한 햇살을 나타내는 색으로 명랑하고 미소 짓는 색, 친절함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색이다. 노랑은 부정적인 내적 심리상태와 감정 요소를 해소시켜 긍정적 에너지를 느낄 수 있게 도와주는 활력소가 되며 편안한 분위기를 안겨 준다.

영양가가 매우 풍부하여 많은 사람들이 식품으로 소비하는 단호박의 씨는

모든 생명체의 근본적인 목적이자 본능인 번식을 위한 요소이다. 호박은 일년에 한 번 열리고 더 이상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 해에 다시 심어야 호박을 얻을 수 있는 ‘일년생 식물’ 또는 ‘한해살이식물’에 속한다. 수명이 짧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씨를 퍼뜨려야 생존 확률이 높아지는 종족 번식 본능에 의해서 호박의 씨가 매우 많아지는 것이다. 같은 과의 열매들로는 수박, 참외 등이 있다. 반대로 한 번 씨앗을 심으면 계속해서 열매가 달리는 ‘다년생식물’인 사과나 배 같은 경우는 씨가 많지 않아도 생존에 문제가 없어 씨앗이 한 개, 두 개 정도로 그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단호박 씨는 우리에게 있어서 단호박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이로운 물질이다. 이와 관련하여 나의 작품 속 단호박의 수많은 씨들은 인간의 유한한 삶, 인간의 내면 속에 존재하는 수많은 자아와 감정들을 상징하면서 인간의 모습을 담고 있다. 결국 쏟아져내리는, 혹은 쏟아버리는 씨들의 순간적인 모습을 화면에 담으면서 나 자신과 타인의 내면을 보다 깊숙이 관찰, 파악하고 삶의 답을 스스로 판단하고자 하는 자율 의지의 모습을 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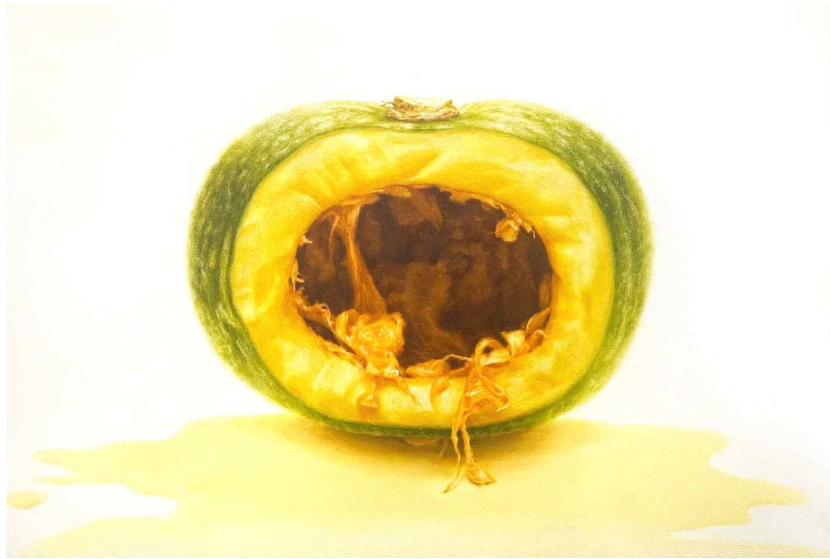
[작품4] PUMMM\_sea, oil on canvas, 145.5x89.4cm, 2023

[작품4]에서는 [작품3]와 다르게 단호박에서 흘러내리는 응어의 액체 형상이 기존의 기하학적 무늬와 같이 평평한 바닥 면과 구분되는 것이 아닌 바닥 면에 점점 흡수되어 가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 고요한 바다의 모습과 같이 표현하였다. 또한, 액체를 그려나갈 때 유화 물감을 붓에 적게 묻혀 캔버스 면과 만날 때 압력과 방향을 섬세하게 통제하고 가장자리를 뿌옇게 표현하여 끝없이 흘러가는 무한성을 담고자 했다. 액체 위에 놓인 부정적 요소인 씨앗들은 바다 위에 표류하는 듯하며 정화의 공간으로 한없이 나아간다. 액체의 부드럽고 잔잔한 표현들은 인간 내면의 평온함, 안정감을 연상케 하면서 직면한 공간과의 원만한 조율과 타협을 암시한다. [작품3]보다 단호박의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씨앗의 양이 많아지며 현대인의 심리적 고통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드러낸다. 하지만, 아직 외부로 나오지 못한 씨앗들의 양이 표출된 씨앗들의 양보다 많기 때문에 완전한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나타내고자 했다.



[작품5] PUMMM\_ING, oil on canvas, 145.5x89.4cm, 2023

[작품5]은 [작품2], [작품3], [작품4]에 이은 ‘PUMMM- time’ 시리즈의 마지막 작업이다. [작품5]에서는 이전 작업들보다 훨씬 많은 양의 씨앗들이 외부로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수많은 씨앗들이 내면에서 흘러나옴으로써 단호박 내부의 공간은 팍 찬 공간에서 텅 빈 공간으로, 어둠의 공간에서 빛의 공간으로 전환된다. 외부에 노출이 마무리된 밝은 색의 씨앗과 아직도 외부적 노출을 꺼리는 내부 공간의 씨앗들을 한 화면에 공존시켜 시시각각 변화하는 복잡한 인간의 내면 상태를 담아냈다. 내부가 완전히 비워진 호박에 비해서 시원하긴 하지만 완전히 털어내진 못한, 토해내는 과정을 보여준다. 심리적 고통의 일부는 노력으로 털어낼 수 있었지만 어떤 부분은 노력해도 털어지기 힘든 뿌리 깊은 불안감이 남아 있는 것이다. 이전의 작업보다 내부가 더 많이 오픈되어서 외부와 내부의 관계성이 두드러지게 보이도록 하였다.



[작품6] PUMMM\_reset, oil on canvas, 90.9x60.6cm, 2023

[작품6]에는 앞서 분석한 이전 그림들과 달리 화면 위에 쏟아져 내리는 씨앗의 형상을 그리지 않았다. 마치 후회도 망설임도 없이 모든 표출 행위가 다 끝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듯 다소 건조하고 텅 비어있는 단호박의 내면이 훤히 드러난다. 내부에서 흘러나온 액체 또한 매우 잔잔하고 고요하며 아무것도 비치지 않는다. 안에 담겨있던 마음속의 복잡한 감정을 모두 쏟아내고 처음으로 돌아가 새로운 감정을 담고자 하는 ‘리셋’의 상태가 되도록 표현했다. 인간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장하면서 경험하고 고착화되어 가는 내면의 응어리들을 스스로 비워내고 처음의 공간, 모습, 순수한 본질, 근원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모습으로의 해석도 가능하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텅 빈 상태는 앞으로 긍정적인 것들을 채워 넣으면 된다는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또 다른 응어리들을 담고 다시 토해내는 과정의 연속을 예견하는 듯 나타내고자 했다.



[작품7] PUMMM\_tunnel, oil on canvas, 90.9x60.6cm, 2023

사람은 외모, 나이, 성별, 취향, 경험, 모든 것이 다른 유일무이한 존재이다. 같은 상황에 놓이더라도 완벽하게 동일한 행동을 하는 경우는 드물며 내면을 드러내는 방식 또한 제각각일 것이다. 이전 작품들에서는 단호박의 중심, 즉 관람자에게 향하는 면을 절단하여 구멍을 내서 씨앗이 담겨 있는 안쪽 공간을 노출시켰다. [작품7]에서는 좌측과 우측면을 절단면으로 선택하여 내부 공간의 중앙에 있을 씨앗들은 외부로 드러나지 않게 된다. 외부로 터져 나오는 씨앗이 정면 한 방향만이 아닌 좌, 우 두 곳으로 늘어남으로써 마치 터널과도 같은 내부 공간에 숨겨져 있는 씨앗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어 끝없이 쏟아져 나올 것만 같은 느낌을 안겨주고자 했다. 또한, 다수의 절단 이미지를 통해 내면 속 밀폐된 응어리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의도를 표현하고자 하였고, 양방향으로 씨앗이 동시에 흘러나오는 역동적인 모습을 연출하였다.



[작품8] PUMMM\_mouth, oil on canvas, 162.2x97cm, 2023

[작품8]에서는 100호 크기의 대형 캔버스에 이전 작업들보다 대형화된 호박과 역동적인 씨들의 모습을 통해 더욱 압도감을 느끼게 하는 효과를 창출했다. 배경색은 채도 낮은 노랑 색감을 넣어 차분한 느낌을 자아내고 전체적으로 순수한 노랑빛을 띠는 단호박을 노랑색의 배경과 함께 배치하여 동화되어 보이는 이미지로 연출했다. 화면 정중앙에 위치한 단호박은 대각선으로 길게 찢어져 반원 형태로 파여 있다. 둥근 단호박에 길게 찢어진 형태의 내부는 짙은 어둠 표현으로 깊이감이 느껴지게 하였다. 동시에 수많은 씨앗들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반원형의 구멍이 결합되어 마치 사람의 입과 같은 형상을 연상시키고자 하였다. 입을 통해 자의로, 또는 타의로 껌질을 찢어 내부의 것들을 토해내고 있는 듯한 이미지를 표현했다. 사람과도 같은 형태의 단호박이 관람자에게 단호박 이상의 의미를 가진 존재로 인식되기를 의도했고 이를 바탕으로 작품의 몰입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작품9] PUMMM-2, oil on canvas, 90.9x60.6cm, 2022

이전 작업들의 경우 화면 전체를 판화용 롤러를 사용하여 가능한 균일하고 섬세한 요철을 만든 후 단호박 이미지를 그렸다면 [작품9]에서는 캔버스 표면 위에 젯소를 매우 두껍고 거칠게 평붓으로 바르면서 붓의 움직임이 강조하였다. 수평 방향으로 젯소가 발린 붓을 이동시키며 만든 붓자국들은 고목의 표면처럼 거칠면서도 유연한 공간을 만들어냈다. 젯소가 완전히 마른 후 그 위에 저채도의 노란색과 금색을 혼합한 유화 물감을 칠하고 건조하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얇게 레이어를 쌓아 올려 평면 위에 깊이감 있는 색채와 정적이고 평온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단호박 이미지는 이전의 정면을 응시하는 증명사진 형식이 아닌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시점으로 설정하여 두 단호박의 연결성에 집중하고자 했다. 하나의 호박이 반으로 절단되어 두 개로 나누어진 상태가 아니라 각각 서로 다른 환경과 시간 속에서 성장하고 형태가 만들어진 단호박을 각각 절단하여 하나의 호박처럼 화면에 배치하였다. 절단되어 내부가 노출된 두 개

의 단호박들을 바쁜 일상을 뒤로 하고 바닥에 편안하게 누워서 마음의 여유를 가진 존재,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무언의 대화로 편안함을 즐기는 존재처럼 보이게 구성하였다. 내면에 있는 각자의 응어리들을 밖으로 꺼내어 털어놓으며 조심스레 공유하면서 서로에게 위안을 느끼는 상황을 담고자 하였다.



[작품10] PUMMM-4, oil on canvas, 130.3x80.3cm, 2022

[작품10]은 두 개의 단호박 이미지와 추상적인 얼룩무늬 액체의 결합을 화면 구성에 적극적으로 시도한 작품이다. [작품9]의 시점과 동일하게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표현했다. 각기 다른 두 개의 단호박의 연결성에 주목하고 흘러가는 액체의 흐름을 강조하고자 이러한 시점을 활용하였다. 평면적이고 기하학적 패턴을 가진 액체와 일부가 절단된 단호박 이미지를 하나의 캔버스 화면에 공존시켜 반복적이고 패턴화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내면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서로 다른 두 개의 단호박의 내면에서 쏟아져 바닥 면으로 분출되는 노란색 액체는 단순히 단호박 내부

의 액체가 절단에 의해 외부로 흘러나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비가시적인 응어리들이 터져 나오는 상태를 표현하였다. 유사하면 서도 불규칙하게 배치되어 있는 도식적이고 기하학적인 얼룩들은 인간의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스트레스, 불안, 가공된 자아, 가식, 가면 등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담아 단순하게 패턴화시켜 형상화하였다. 인간의 내면에 잠재한 감정의 형태와 색은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존재들보다 변화무쌍하고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나의 작품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시각화된 얼룩의 형태는 이런 특징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작품9]보다 전반적 화면의 채도를 높여 차분한 느낌과 대비되는 역동적인 분위기를 만들면서 두 단호박이 각자의 내면을 드러내며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 Ⅲ. 결 론

본 논문은 2023년 석사 청구전 ‘PUMMM’에 전시한 작품들을 통해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현대인의 심리, 감정 상태에 대한 연구와 이를 단호박 이미지를 통해 시각화하고자 하는 나의 생각을 밝히는 글이다.

나는 최근 뉴스나 기사에서 타인에 의해, 혹은 자의로 이루어지는 ‘죽음’에 관련된 내용을 많이 접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은 특히나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여 현대 사회의 어떤 부분이 현대인을 이토록 궁지로 몰아갔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한 구성원으로서 현대 사회의 객관적인 상황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영향을 받는 현대인의 심리 변화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나의 작품을 보고 있는 동안은 현대인의 내면에 축적되어 온 응어리가 발산되는 듯한 해방감을 느끼길 바란다.

본 논문에서는 단호박의 다양한 형상에 빗대어 현대인의 심리적 고통의 해소를 표현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내면을 추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닌 실존하는 사물인 단호박에 대입하여 구상적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현대 사회의 실태를 심층적으로 알아보고, 상황에 따른 사람의 심리 상태 변화와 과거와 현재를 비교 분석하는 시간은 작품의 내용적 측면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토대로 비가시적인 사람의 심리 상태를 단호박 이미지를 통해 조형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현대인의 심리적 고통이 외부로 표출, 해소되도록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타인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내면도 관심 있게 들여다보며 현대 사회의 영향으로 내재되어 있던

나의 마음속 응어리도 인지하는 계기가 되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사람의 심리라는 비가시적인 요소를 실제 사물에 빗대어 구상적으로 풀어나가는 방식 이외에 추상적인 표현 방식도 효과적인 의미 전달이 가능할 것이라는 새로운 시각에 다다랐다. 단호박 연작을 연구, 분석하면서 나의 연구 목적을 보다 다양한 사물을 통해 나타낼 수 있고 이를 여러 방법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새로운 방향성을 갖게 되었다. 앞으로 단호박 이미지에 국한하지 않고 인간의 내면을 보여줄 수 있는, 보다 많은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는 비유적 사물에 대한 적극적인 관찰을 시도하고 이를 캔버스 화면을 근간으로 다각적 실험과 적용을 통해 표현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연구한 내용들을 토대로 더욱 심도 있는 작품 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다.

## 참 고 문 헌

김윤섭, 『이광호의 선인장』, (아츠앤컬처, 2013.12.11.)

<http://www.artsncultur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07>

네이버 지식백과, 타임 푸어(time poor),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4368391&cid=43667&categoryId=43667>

사이언스 투데이, 『[사이언스 in Art] 삶과 죽음을 박제하는 예술가…데미안 허스트』, (YTN사이언스, 2022.06.17.)

<https://science.ytn.co.kr/program/view.php?mcd=0082&key=202206171655382087>

서국희, 「왜 자살률 세계 1위인가?」, 보건의료기술평가, 2017

서준혁, 「현대인의 불안과 자기진실성(Authenticity) - 치유적 관점에서 본 니체와 테일러 철학-」, 대한철학회, 2019

양명숙, 전지경 외 3명, 「현대인의 정신건강」, (학지사, 2019.08.30.)

에바 헬러, 『색의 유혹1』, (예담, 2002.02.19.)

이진숙, 『삶을 농축한 얼굴을 그리는 화가 강형구』, (톱클래스, 2007.07)

<http://topclass.chosun.com>

한중섭, 「사실, 바쁘게 산다고 ○○○해결되진 않아」, (책들의 정원, 2018.07.18.)

THE ART STORY, 『"Lucio Fontana 아티스트 개요 및 분석』, (THE ART STORY, 2018.2.18.)

<https://www.theartstory.org/artist/fontana-lucio/>

# ABSTRACT

## A Study of psychological expression of modern people through sweet pumpkin images – Focusing on my works –

Park Chae Rin  
Dept. of Western paint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is thesis focuses on the 'PUM-' series, which I worked on from 2022 to 2023, to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society in the fourth industrialisation era and th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tates of modern people. Focusing on the image of a pumpkin, the thesis explains the various and complex psychological states that modern people experience in their lives through the study of the space within the canvas and the composition and expression of the image.

As modern society develops and changes rapidly, there are new trends that characterise modern people. As a result, modern people

live with more anxiety and stress in a high-tech society than in the past.

The various and complex psychological states that modern people experience in their lives are expressed through the composition of the image of a pumpkin with an embedded emotional baggage. The images of seeds and liquids pouring out from the inside of the cut sweet pumpkin capture the image of modern people seeking peace by relieving psychological pain. As a member of the modern society, I wanted to present the objective situation and problems of the modern society and draw attention to the psychological changes of modern people affected by them.

In conclusion, the time I spent researching the actual situation of modern society in depth and analysing the changes in people's psychological state depending on the situation and comparing the past and present became an opportunity to build the content aspect of the work. Based on this, I tried to show the invisible psychological state of people in a formative way through the image of a pumpkin, so that the psychological pain of modern people can be expressed and resolved externally.

I hope that my thesis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to recognise the reality of our lives in the modern world and provide an opportunity for painterly healing. While viewing my work, I hope

that the viewer will feel a sense of liberation, as if the emotional baggage that has been accumulating inside modern people is being released.